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교육
나의 선택
나의 미래
나의 몸
나의 권리



A young woman with long red hair and red sunglasses is the central figure, holding a white sign with red and blue text. She is walking in a crowd of people at an outdoor event. To her right, another woman with blonde hair and red sunglasses is visible, holding a green bottle. The background shows a modern building and other attendees under a clear sky.

MY BODY
TO GIVE
NOT YOURS
TO TAKE

바로 지금, 행동할 시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강요를 받고, 범죄자로 몰리며, 차별당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맞서,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하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 나의 몸 나의 권리를 시작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건강과 몸, 섹슈얼리티, 재생산에 대해 공포나 강요, 폭력,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전 세계 많은 사람은 이러한 결정을 국가와 의료 전문가, 심지어는 가족에 의해 통제당한다. 형법과 처벌이 통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며, 결국에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은 정부와 그 외 주체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고 범죄화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 문제를 둘러싼 침묵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인식에 맞서 네팔,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 마그레브 지역, 아일랜드(7~11페이지 참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캠페인은 2015년 이후의 인권과 평화, 안보, 개발의 증진을 위한 의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성과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한다. 2014년 4월 개최되는 유엔 인구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회의는 캠페인의 중요한 시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세계적인 반발

최근 일부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단계의 억압적인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3년에서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성과 재생산 권리를 축소하고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다.

2014년 1월,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매우 억압적인 동성결혼(금지)법안에 서명했다. 2013년 12월 인도 대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한 1861년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뉴델리 고등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같은 달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낙태법 초안을 승인했는데, 만약 이것이 스페인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성들의 낙태 시술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 이는 스페인 정부의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터키,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부분 정부나 종교 단체의 자금과 지원을 받는 많은 비

국가행위자가 유엔과 그 외 포럼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의 낙태반대단체들이 주도하며 일부 정치권의 지원을 받고 있는 "One of Us" 운동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 배아의 파괴 등을 포함한 활동에 대해 EU 기금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1백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산모 건강을 위한 개발 원조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서명운동이 성공할 경우, 세계 각지의 빈곤층 여성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일부 국가의 사례를 뛰어넘어 차별로부터의 자유,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피임, 그 외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서비스와 교육 등 폭넓은 사안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의 몸과 삶, 성과 재생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제삼자에 의해 부정당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곳에서는 섹슈얼리티와 개인에 대한 자유가 억압되고 건강과 행복, 안전이 위협받는다.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성과 재생산 권리는 인권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다.

- 자신의 건강, 몸, 성생활,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정할 권리
-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얻을 수 있고, 관련 의료서비스와 피임에 접근할 권리
- 임신의 여부와 시기, 자녀의 수를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권리
-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선택하고 구성할 권리
- 강간과 그 외 성폭력, 여성 생식기 할례, 강제 임신, 강제 낙태, 강제 불임, 강제 결혼 등의 차별과 강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왼쪽: 2011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강간 반대 시위에서 한 여성이 '내 몸은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My body to give not yours to take)'라는 문구를 들고 있다.

성관계 상대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 간, 또는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가 합의 하에 갖는 성 관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아프리카 지역 36 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개인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할 정부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모리 타니, 나이지리아 북부, 소말리아 남부, 수단 등에서 “동성애”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브룬디,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우간다 등에서는 지난 5년 간 동성 성인 간의 성관계를 더욱 강력히 금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남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도 있다.

인도네시아 아체(Aceh) 주 의회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단둘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할와트(khal-wat) 법 시행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태형에 처한다.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혼인 관계



가 아닌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음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걸프 지역 국가에서도 ‘지나(zina) 법’이라 불리는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여성은 강간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수치심이나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서뿐만 아니라, 신고할 경우 ‘지나(간통)’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전히 산모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3%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전 세계 가임기 여성 중 40%가 극도로 제한적인 낙태 관련 법률이 존재하거나, 낙태가 합법이더라도 이에 접근하거나 시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 사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이와 같은 국가 중 하나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곳의 여성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었다. 니카라과에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17세 이하인 이곳에서는 10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 여성도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낳아야 하거나, 발각될 경우 징역에 처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안전하지 못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아야만 한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20주년(ICDP+20)과 post-2015 개발 의제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성평등, 여성의 자력화를 개발의 핵심 요소로 인식했고, 이 자리에서 세계 각지를 대표하는 179개국 정상들은 역사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카이로 행동계획은 이러한 권리가 다양한 국제인권 조약에 포함되도록 할 것을 재확인하고, 각국 정부와 공여국을 위해 이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각국 정부는 이후 5년마다 회담을 하고 이러한 기준에 대한 준수와 진전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14년은 카이로 행동계획 20주년을 기념해 검토가 이루어지는 해이다. 국제인구개발회의의 20주년 검토(ICPD+20)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과 권고 사항은 각국 정부가 앞으로 채택하게 될 정책 및 계획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마련될 post-2015 개발 의제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post-2015 개발 의제는 향후 2년간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동의하게 될 새로운 개발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전 세계 활동가들은 여기에 성과 재생산 권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왼쪽: 2013년 5월, 카메룬 야운데(Yaoundé) 도심 지역의 이 젊은 남성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빈번하게 구타를 당했고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인해 강한 피해자들은 또다시 피해를 받게 된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결혼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 재생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여아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이 어린 나이에 결혼할 것을 강요당하며, 성관계나 피임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어린 나이에도 결혼 직후, 또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여성연구소(ICRW)는 매년 1,4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기 여성이 출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강요된 성관계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이 개발도상국의 15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기 여성이 사망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부르키나파소와 시에라리온은 법적으로 결혼 가능한 최저 연령을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

면서 10세의 어린 소녀까지도 결혼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이렇게 결혼한 여성들은 자신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 전혀 결정할 수 없고, 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으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피임할 수 없는 사람들

유엔인구기금은 피임만으로도 매년 1억 8,700만 건의 원치 않는 임신과 1억 500만 건의 낙태, 21만 5,000건의 산모사망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여성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억 1,500만 명의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고 싶어도 피임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

“일곱 번의 임신과 다섯 번의 출산을 한 뒤, 남편에게 피임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어요.”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Ouagadougou)의 한 여성,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성과 재생산에 대한 건강 서비스와 같이 여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우선시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차별의 한 형태이다. 가족계획서비스를 우선하는 정부조차도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피임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대다수 남편과 남성 가족 구성원들은 아내에게 피임에 대한 조언과 도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을 비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부부만이 인

구가족발전법과 보건법에 따라 성과 재생산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의무

국제인권법상 모든 국가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법률과 정책, 관습상 존재하는 차별을 해결하고 제거해야 하며, 이는 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의료 전문가 또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민간단체 및 개인에 의한 차별도 포함한다. 정부는 또한 차별을 유발하거나 영속시키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고 이를 근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람들에게 문화, 전통, 종교적 배경으로 정당화된 성, 재생산, 부모상에 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규범에 따르면 강요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을 통제하는 것은 시댁 가족들이나 남성 가족 구성원, 종교단체 등 제삼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몸에 대한 자율성, 성과 재생산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숫자로 보는 개요

40%

40%의 가임기 여성이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2003

47,000

47,000명의 산모가 매년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합병증을 얻어 목숨을 잃는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2003

2억 1,500만

2억 1,500만 명의 여성이 임신을 원치 않거나 연기하고 싶을 때에도 피임하지 못한다.

출처: 국제여성연구소(ICRW), 2013

215,000

매년 피임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산모사망 수

출처: 유엔인구기금(UNFPA), 2004

24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생식능력을 제거해야 하는 (불임수술을 받아야 하는) 유럽 국가의 수

출처: 유럽트랜스젠더(TGEU), 2013

76

전 세계 76개국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불법이다. 그중 36개국이 아프리카 지역이다.

출처: 국제동성애협회(ILGA), 2013

1,400만+

매년 1,400만 명의 청소년기 여성이
강요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로 출산한다.

출처: 국제여성연구소(ICRW), 2013

6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4개 국가에서
60%의 청소년이 임신을 막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그 중 1/3은 피임 방법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출처: 유엔(UN), 2012

사형

이란,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북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남부, 수단, 예멘에서 “동성애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국제동성애협회(ILGA), 2013

앞으로 2년에 걸쳐,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한 형법의 위법적 사용을 중단할 것과 성과 재생산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는 법률과 관습상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5개 지역 7개국의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개개인 특히 여성과 성 정체성 혹은 인종 때문에 차별받을 위험에 처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제삼자가 침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국가들의 각기 다른 전후 사정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성과 재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삼자가 개인의 결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것

■ 법률과 관습상의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성과 재생산 관련 건강 서비스, 교육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할 것

■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할 것



© Amnesty International

네팔

네팔의 약 60만 명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다.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이들 대부분은 30세 이하 여성이다.

제공: 유엔(UN)

네팔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하고 제도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궁탈출증 발병률을 높인다. 자궁탈출증은 골반 근육이 약화되면서 자궁이 질 아래로 흘러나오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자궁탈출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 아주 어린 나이에 출산하는 것, 짧은 기간에 이어서 여러 아이를 출산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는 모두 여성이 자신의 몸과 건강,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당시 24세였던 코필라(Kopila)는 넷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12일 후, 도끼로 장작을 패는 중이었어요.” 코필라는 2013년 4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했다. “남편이 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말다툼으로 이어졌죠. 남편이 저

를 심하게 구타했어요. 자궁이 흘러나온 것이 장작을 패던 중이었는지, 남편에게 맞은 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등과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똑바로 서거나, 앉지도 못했고, 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재채기를 하자, 자궁이 빠져나왔어요.”

국제앰네스티는 네팔 정부에 자궁탈출증 문제를 시급한 인권 사안으로 인식하고 자궁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할 예방 전략을 긴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지역 파트너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위쪽: 네팔 다누샤(Dhanusha) 지역에서 성차별을 주제로 한 포커스 그룹 토론에 참여한 여성들의 모습.

엘살바도르

“여성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내가 그들로 인해 겪은 고통을 다른 여성들이 겪지 않도록 해 주세요.”

베아트리스(Beatriz), 2013년 9월



2012년,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일부 영역에서 나타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젠더 기반 폭력은 만연한 상태다. 2013년 6월에는 일주일 동안 두 명의 여성이 배우자로 알려진 사람들에게 의해 불에 태워졌다. 엘살바도르에서 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3년 4월, 베아트리스(가명)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치료를 요구했다. 루푸스(lupus)와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베아트리스가 임신하게 되자, 의료진은 임신을 유지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태아 역시 뇌와 두

개골 일부가 없는 상태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세계에서든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극단적인 법 제도 때문에 의료진은 어떠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았다. 베아트리스는 마침내 그녀의 용기와 엘살바도르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그 외 많은 사람이 함께 펼친 캠페인 덕분에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게 되었다. 베아트리스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에도, 그녀의 생명을 빼앗을 뻔했던 전면적인 낙태 금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엘살바도르의 여성 폭력에 맞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San Salvador) 거리의 훼손된 그래피티. 그래피티 원본에는 “낙태 금지는 가난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쓰여 있다.

부르키나파소

“우리는 성적 권리(Sexual Rights)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청년 활동가 칸도 세라핀(Kando Seraphine),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임을 비롯한 성 건강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규범과 젠더 기반 차별, 빈곤으로 인한 조혼 등의 관습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결정을 제한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이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성 건강과 가족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 이야기할 사람을 힘들게 찾았다 하더라도, 의료진들의 차별적인 태도와도 부딪혀야 한다. 남편의 허락 없이는 피임약을 제공받지 못하고, 이러한 장벽을 모두 극복하더라도 피임약이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성이 피임과 가족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별적인 태도와 재정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들이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정보와 교육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왼쪽: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의 알가도(Yalgado) 병원 복도에서 여성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마그레브 지역

모로코 기획부가 여성 폭력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신고된 강간 사례는 38,000건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의 여성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마그레브 지역(알제리, 모로코-서사하라, 튀니지)에서 강간과 관련된 법 조항은 피해자의 인격적·신체적 완전함보다는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알제리, 튀니지를 비롯하여 최근까지의 모로코 법에 존재했던 차별적인 조항으로 인해 강간 가해자들은 18세 미만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기소를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16세였던 아미나 필라리(Amina Filali)는 자신을 강간한 남성과 결혼할 것을 강요당했고, 이를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고 여겼다. 아미나는 결국 2012년 3월,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미나의 죽음은 모로코와 근처 지역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법률이 강간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법은 아미나를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하기는커녕 두 번이나 상처를 받게 했다.

2014년 1월, 모로코는 이러한 차별적 조항을 폐지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로코를 비롯한 알제리, 튀니지의 법 제도는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전히 마그레브 지역에 남아 있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함으로써 기소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물론 그 외 차별적인 법을 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채택하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건강 서비스와 법적 구제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림: 조흐라 필라리(Zohra Filali)가 딸 아미나의 사진을 들고 있다. 아미나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당한 뒤 2012년 3월 쥐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PETER MUIRY/AP/Getty Images

아일랜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떠나는 여성은 매일 12명 이상이었다. 아일랜드에서는 여성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단, 산모의 생명 자체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예외는 1992년 강간으로 인해 임신하게 된 14세 소녀가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아일랜드 법원의 판결 이후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상당한” 위험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2012년 10월, 사비타 할라파나바(Savita Halappanavar)는 유산 위기로 생명이 위독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사비타는 낙태 시술을 요청했지만, 태아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요청은 거부되었다. 결국 사비타는 패혈증이 발생해 며칠 후 숨을 거두게 되었다. 사비타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 분명한 법적 정의가 마련되어야 할 시급성

이 더욱 강조되었다.

2013년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중 생명보호법안(Protection of Life During Pregnancy Act)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의 허용을 위해 여성의 건강과는 별개로, 생명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 산모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나 치명적인 태아 기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여전히 낙태 시술은 금지되어 있다.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징역 14년 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접근에 대한 인권 기준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제시함으로써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여론과 정치계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파트너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위: 아일랜드에서 사비타 할라파나바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비타는 유지 불가능한 임신에도 낙태 시술을 거부당했고, 2012년 10월 28일 숨을 거뒀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성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와 범죄화에 반대하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는 My Body My Rights 나의 몸 나의 권리 캠페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amnesty.or.kr/campaign/mybodymyrights

#MyBodyMyRights

그림: 2013년 5월 모로코의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형법 475조와 기타 여성 차별적인 조항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4년 수정되기 전까지 형법 475조는 강간 가해자들이 18세 미만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10페이지 참조)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개국 300만명 회원과 지지자 활동가가 인권 보호를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OR.KR

문서번호: ACT 35/001/2014, 원문 언어: 영어, 원문 발행: 2014년 3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10-620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